

сахалин сахалин устуу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8년 12월 21일(금) (율력 11월 15일) Пятница 21 декабря 2018 г. № 49(11681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지난 15일(토) сахалин주 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сахалин주 주요 율카 점화식이 있었다. 이날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공연을 관람하고 이들을 율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환영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불꽃놀이로 장식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주지사 권한 대행, 주두마 정과대표들 만나

지난 19일(수) 율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주지사 권한 대행은 сахалин주주마 정과대표들과 만나 주의 3년간 예산안 수정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도로건설에 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기로 했다. 2019년에 도로 건설에 약 170억 루블리를 지급할 계획으로 도로 40킬로미터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교각 8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면담에는 주두마의 <예지나야 러시아(통합당)>정당, 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의 정과대표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새 예산안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공감했다.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당소속 관계없이 두마의 정과대표들과 함께 주내 구역 방문에 초대했다. 지방 사업현황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리마렌코 대행은 주의 법안 기획 준비 시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과대표들의 의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장 강원도 대표와 만나

지난 19일(수)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한국 강원도 러시아본부(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본부장 이신우 주무관과 만나 잠재 협력을 논의했다. 나드사진 시장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이미 한국의 여러 도시 및 지방과 장기간 경제, 문화 등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 주무관은 의료기구 생산, 해양 생물자원 가공, 관광업에 대한 강원도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고 내년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기획과 고급기술회사들과의 협력에 관심 있다고 전했다.

сахалин-한국 복싱 꿈나무 친선경기 개최

오는 22일(토) 오후 4시 코르사코브 <플라그만>스포츠단지에서 <сахалин-한국 복싱 꿈나무 친선경기>가 열린다.

сахалин 측 초청으로 한국에서는 단장을 맡은 김주영(용인대 교수) 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과 전 WBA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유명우, 임원, 지도자 등 복싱 영재 6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대, 국제학술회가 열려

12월 21일(금) 한국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에서 <한-러시아 극동 경제협력과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미래> 주제로 2018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가 개최된다. 학술회는 сахалин국립대학교,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와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한림대학교와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술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현재와 미래>, 2부는 <한-러시아 극동 경제 협력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발표되고 논의된다.

сахалин에서는 이번 학술회에 сахалин국립대 도건식 교수, сахалин향토박물관 전문연구자 진 율리아 박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 수상 권한 대행 임명

지난 17일(월) сахалин주 정부 율라 셰르비나 수상이 사임하는 관계로 알렉세이 벨리크 주 정부 부수상이 수상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율라 셰르비나 주 정부 수상은 올레그 코제마코 전 주지사와 한 팀으로 2015년 9월에 아무르주에서 сахалин으로 왔다. 앞으로도 올레그 코제마코와 일할 생각을 한 율라 셰르비나는 지난 16일(일) 연해주 주지사 선거에서 올레그 코제마코가 주지사로 선출된 소식을 받아 셰르비나 수상은 사임을 언급했다. 연해주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율라 셰르비나는 연해주 정부 제1 부수상으로 부임했다.

сахалин주정부 수상 권한 대행으로 임명된 알렉세이 와실리에위츠 벨리크는 쿠반국립기술대학교 금융 및 대출을 전공, 졸업 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연방 농산업부의 금융·회계부에서 근무, 불가연방국의 계약자와의 사업담당 수석전문가, 모스크바 <주택담보대출부>의 지역 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 2015-2016년 에는 모스크바의 <극동지역 인적 자원개발부>의 주택 건설기획 및 사회 제반시설 시행 사업을 담당했다.

сахалин주에서는 2016년부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부시장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 сахалин주 경제개발부 장관으로, 다음에는 주 정부 부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셰르비나 수상이 사임하는 날 сахалин주 제1부지사 안톤 율로쉬코도 사임을 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율로쉬코도 코제마코와 한 팀으로서 코제마코를 따라 연해주 주지사 선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сахалин주, 연방예산에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8억8300만 루블리를 지급

경제적 잠재력의 고성장속도를 달성한 극동의 5개 지역(아무르주, 마가단주, сахалин주, 캄타트카와 연해주)이 연방정부의 장려금을 받는다. 이러한 지시에 러시아연방정부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총리가 서명했다.

극동지역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러시아 지역들 중 сахалин주와 캄차트카 변경의 경제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율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주지사 권한 대행은 "이 장려금을 지방 자치단체들의 제안을 토대로 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요구안 수집은 이미 시작되었다. сахалин주가 어떤 지역이 될지 직접 각 주민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의 장려금 199억6000만 루블리는 2017년에 경제적 잠재력의 성장률에 따라 1위에서 40위까지 차지한 행정지역에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의 자금은 연방예산에서 규정되었다.

제1회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 게임 성화 봉송자 360여 명으로 확정

첫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 성화 봉송자로 선수, 정치인, 귀빈, 대규모 경기 조직자들이 나선다.

성화 봉송 릴레이는 경기 개막 50일 앞두고 시작된다. 전통 풍습을 따라 22일(토) 동계스포츠의 고향인 야쿠치아의 <벤스키 기둥> 자연공원에서 점화된 성화는 야쿠츠크시를 통과하여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로 보내어진다. 성화는 12월 31일 24시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сахалин주에서 성화 릴레이는 1월 7일부터 시작한다. 쿠릴열도에 서부터 시작해 1월 18일은 сахалин섬의 가장 북부에 있는 도시 오후부터 전 지방으로 릴레이 봉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성화는 32개를 제작했는데 이중 일부는 сахалин주에서 릴레이가 진행될 구역에 남겨둔다.

성화 봉송자를 수반할 수호자로는 сахалин 우수 육상선수인 로만 트루베츠크이, 카리나 글레보와와 일리야스 누르갈리에브가 선정되었다.

<아시아 아이들>은 2020년에 로잔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의 예비 단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сахалин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홉스크의 신동근 태권도 사범의 모토는 <규율과 노력>

필자는 홉스크시의 신동근(신 세르게이 유리예위츠) 태권도 사범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여러번 본 적이 있었다. 얼마 전에 교육원 개원 기념 태권도축제에서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1956년 홉스크 출생인 세르게이는 소련시절 유소년과 똑같이 체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창시절 7학년 때부터 9학년까지 복싱과 육상도 했고 배구에서는 학교대표팀 선수로도 활동 하였다. 학교를 통해 운동을 시작 했고 도시 동네마다 아동 클럽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주 우리 동네에 있는 <베료스카> 아동클럽을 찾아 탁구도 하고 육상 등을 했죠. 그런 클럽들이 아주 많았고 클럽끼리 경기도 자주 치렀습니다. 즐거웠습니다."라며 신 사범은 회상했다.

1학년은 홉스크 제5호 조선 학교에서 마쳤는데 1963-64년에 마지막 조선학교들이 폐교할 시기였다.

신동근 씨 부친의 사할린 가정사는 1940년에 시작되었다. 1939년에 신동근 씨의 할아버지가 돈벌이 하러 사할린에 처음 왔고, 1940년에 식구를 사할린에 데려왔는데 그중에 세르게이의 아버지는 당시 7세였다고 한다. 세르게이는 늘 한국으로 귀환하고 싶어 하던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세르게이는 말한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제지공



장에 노동자로 취업했다. 1982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건설 분야에 일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련시절 공사장에서 일하면 무료로 집(주택)을 빨리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1982년에 그는 하바롭스크체육대학(통신과 형태와 비슷함)에 입학했다.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공부하고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1984년에는 결혼을 했다. 친구 모두가 결혼한 상황에서 27세 나이에 장기간 그를 그 당시에는 노총각으로 여겼다고 한다.

<유도의 영재>란 영화를 처음 보고나서 많은 감동을 받고 1970년대에 들어서 그는 동양

무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1979년에 세르게이는 처음 동양무술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당시 홉스크해양전문학교에서는 코르사코브에서 온 청년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들은 유도, 가라데의 기초를 알고 있어서 이들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해외에 다니는 선원들에게는 동양무술에 관한 책을 주문하여 이 책들을 통해 열심히 기술을 익혔다고 했다.

1993년에는 사할린주 태권도협회가 평양에서 태권도사범을 초대했는데 세르게이는 그 사범과 함께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홉스크에서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켰다.

태권도 사범만으로는 식구를 부양할 만한 재정이 아닌데다 풍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신 세르게이는 여러 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건설공사를 하고 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스포츠스트로이>회사의 대표이사다. 또한 시 스포츠위원회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스포츠학교 사범이기도 하다. 그리고 <완벽에 이르는 길>이란 홉스크 사회스포츠단체 회장, 사할린주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물은 임대하여 동양무술전문운동관을 만들었는데 모자라는 운영비는 개인사업으로 번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신동근 사범은 직접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에 그의 두 제자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초보자들에게 기반을 익히는 과정을 맡고 있고, 신 트레이너는 어느 정도 성장한 12-13세부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총 학생 수는 50명이다.

신동근 사범의 모토는 "규율과 노력"이다. 그는 이 말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어떨 때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신 트레이너는 고백했다. 그는 제자들을 자신 아이들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는 25여년간 태권도에서 성과를 거둔 제자도 적지 않다. 2015년에 그의 제자들인 알렉산드르 데이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브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ITF)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러시아 연방 챔피언, 러시아 극동 챔피언 왕관을 한 제자들도 있다며 신 사범은 자랑을 금치 못했다.

신 사범은 사할린 WTF협회, ITF협회의 부회장이다. 사할린에서 동양무술, 특히 태권도 설립,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사범 중 한 사람이다. 사할린에서는 태권도 명인들 사이에서도 친분을 돈독히 하고 있다.

신 사범은 WTF의 3단, ITF의 5단, 당수도의 6단을 갖춘 선수다. 스포츠, 태권도에 활동하고 있는 그는 좋아하는 태권도와 동양무술에 대해서는 무수한 얘기를 지속 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에게도 태권도의 역사,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신 사범은 최근 3-4년간 ITF 태권도 선수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현재 이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을 유즈노사할린스크, 홉스크, 토마리, 체호브, 노글리키, 오히에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한다.

신 사범은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명성이 있는 경기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올해는 단 한번 러시아 챔피언 대회에만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활동적인 삶을 사는 그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홉스크시라고 한다. 여기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한다. 또 하나는 음악이라고 했다. 그가 즐기는 음악을 들으면 그 다양한 장르에서 수집해온 70-80년대의 음악 테이프, 비닐 레코드, 디스크만해도 수백장에 달한다. 집에도, 운동관 관장실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최고 장비가 있단다.

스포츠에 수십년을 바친 신동근 사범은 앞으로도 열심히 선수 양성을 할 생각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재구성된 <호두까기 인형> 감상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의 <러시아.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오케스트라의 새해기념콘서트가 열렸다. 3일간 진행된 공연에 관람객은 1500명 이상이 넘었다. 오케스트라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5번째이다.

잘 알려진 호프만의 동화를 혁신적으로 연주한 공연에 사할린 주민들이 감탄했다. 챔버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인 찌그란 아흐나자란이 재구성한 <호두까기 인형>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펼쳐지는 동화를 읽는 것과 같았다.

디지털 박물관은 대규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사공원 전문가들 덕분에 차이코프스키의 고전음악이 현대예술과 엮이어서 펼쳐졌다. 멀티미디어 전시장은 임시로 곁에 혁신적인 컴퓨터 아이디어와 그래픽,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장비가 갖추어진 콘서트 공연장으로 바뀐 셈이다.

중앙화면에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마리, 호두까기 인형, 생쥐 대왕'이 줄이어 나타났다.

박물관은 연이은 행사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도전게임과 새로운 예술작업이 진행되는 활동교실들의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전 연령층의 관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역사공원 측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услышали обновленного "Щелкунчика"

С 12 по 14 декабр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состоялись предновогодние концер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За три дня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мероприятия.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Щелкунчика" пять раз.

Сахалинцев поразило новаторское исполнение известной детской сказки Гофмана. "Щелкунчик" в авторской версии главного дирижера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Тиграана Ахназаряна — это чтение сказки в сопровожде-

нии красивой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анимации под музыку из балета Чайковского в исполнении оркестра.

Интерактивный музей обладает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ми техн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этому благодаря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музыкальная классика Чайковского переплелась с современным искусством. Мультимедийную выставку временно превратили в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оснащенный рядом интерактивных решений,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новационных компьютерных идей и графики. На центральном экране сменяли друг друга главные герои — Мари, Щелкунчик, Мышиный король.

Музей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череду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десь порадуют посетител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нескучной и нестанда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 квестами 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в обновленной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сообщает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

사할린 주민들이 뮤직비디오 축제 명칭 선정

2019년에 사할린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뮤직비디오 축제가 개최된다. 현재 축제조직위원회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규정이 작성되고 심사위원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곡목의 음악과 무용을 우수하게 촬영한 주인공들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에 조성될 최종 갈라콘서트의 일환으로 <옥차브리> 영화·콘서트관에서 공연을 상영할 계획이다. <영화오락연맹>은 잠재적 관람객과 참가자들에게 축제의 명칭 선정을 맡기로 했다. 12월 18일에 진행될 첫 단계에서는 원하는 명칭을 제출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명칭을 뮤직비디오 축제의 명칭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выбрать название для фестиваля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В 2019 году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 снятых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фестиваля.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положение,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с членами жюр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исполнители, на чьи музыкальные ил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омера будут сняты лучшие, по мнению жюри и зрителей, клипы, выступят в ККЗ "Октябрь" в рамках итогового гала-концер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 декабря 2019-го.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решило доверить выбор названия фестиваля его потенциальным зрителям и участникам.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до 18 декабря,

можно будет предложить свой вариант названия.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голосование. Название, набравше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станет названием фестиваля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사할린 고용주들의 1/3이 주민고용사무소를 통해 직원 채용

사할린주 주민고용 및 노동사무소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원의 품질과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에 주내 전 지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농업, 생산업, 운송업, 건축업과 통신업 분야를 운영하는 고용주 318명이 응했다.

설문조사 내용 중 새로운 직원 채용의 주요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31%는 주민고용 및 노동사무소(주민고용 센터)에 요청해 뽑는 것으로 나타났고, 18%는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16%는 동료나 지인을 통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15%는 전문 인터넷포털을 통해 채용한다는 응답을 했다.

새로운 직원 채용 시 고용주들의 최대 난제에 대해 27%의 응답자가 고속런 근로자들(5-6급)을 뽑는 데에, 21%는 기술공학 노동자, 일반 경력 전문가(전문가, 공정기사, 작업반장, 기타) 선택에, 20%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2-4급)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5%의 응답자는 행정관리직원 선택에서 고용주들의 난제가 가장 적다고 답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에 있어 어려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55% 응답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수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18%는 근로조건과 임금의 제안에 있어 낮은 경쟁력을 원인으로 답했고, 14%는 노동력의 준비성이 수준 이하임을 지적, 6%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전체 채용된 노동력의 품질에 대한 고용주들의 41%는 부분적으로는 만족하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한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1%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요구에 전적으로 적합한 직원들이 채용되어 만족하다고 답했고, 3%의 응답자는 채용된 전문직 사원들에게 재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용된 직원들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8면에 계속)

김포는 평화문화 도시로서 사할린과의 문화교류 계속 희망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지난 14-15일 김포 평화민속예술단이 사할린에서 공연을 했다. 이 공연은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의 주최 및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연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김포대표단 단장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만나 사할린 공연 계기 등을 알아보았다.



- 사할린에서 공연을 하게 된 계기는요?

-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상황도 남북관계가 평화 분위기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평화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김포에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신 분들 307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 내에서 3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요. 사할린 영주귀국 분들께서 1년에 한 번 역방문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어서 이번에 사할린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 재단에서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네, 2014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챔버오케스트라가 2014년, 2016년 두 번 김포에서 공연을 했고, 2017년에는 러시아 불쇼이 합창단, 2015년에 러시아 <고틀린카>무용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신 분들을 초대하고 관람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할린 동포들이 김포에 이주하신 지 10

포평화민속예술단>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당원들이 중요 무형문화재 국악, 살풀리, 선소리 등 민속예술의 이수자이며 김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내에는 물론 해외공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고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 공연 외에 김포에서 전시회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네벨스크에서도 전시회를 했고 한인문화센터에서도 일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출판된 작품을 말하자면 김포 작가들이 찍은 김포 전경 사진이고 미술작품은 북한하고 마주보고있는 마을의 풍경들이 담긴 그림입니다. 전시 작품은 25점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벨스크에서 방명록에 '아주 고맙습니다', '내용 깊다' 그런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 사할린 방문 소감은요?

- 우선 김포의 공연단을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 시장님께서 함께 사할린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연말 일정이 바빠서 못 오셨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할린에 처음 왔는데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이고 참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을 찾았을 때 그랬습니다...

김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에게 편안함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10주년 행사를 크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할 때 이번에 사할린에서 공연을 하신 분들이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김포에 거주하시는 사할린 동포들을 민간단체 등이 보살피고 있고 여러 나들이도 하고 있습니다.

- 네벨스크 공연은 어떠셨나요?

- 좋았습니다. 공연장(중앙문화회관 - 기자주.)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대, 음향 시설 등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네벨스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공연을 관람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관중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단원들께서 감동받으셨답니다. 공연 사회를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하시다가 울컥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현지 음악학교 바이올린 연주단도 몇 곡을 연주했고 살풀이할 때 바이올린 연주와 협연도 했습니다.

- 사할린 공연에 나선 <김

예술

유럽의 일상과 멋을 담은 조성용 화백의 사진

지난 19일 (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조성용 동포 화가의 <유럽여행> 사진전이 열렸다.



작년 여름에 조성용 작가가 버스여행으로 유럽의 7개국(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돌면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에 흑백사진과 컬러사진 약 60점이 소개되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전에 우리 동포 화백님들이 한인문화센터 벽에 그림과 사진이라도 붙였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했는데 작년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님의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조성용 미술가의 사진전시를 열어 앞으로 이 방면에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길거리의 사람, 바위, 산, 항구, 신부, 전망, 카페앞, 지붕 위 등 조 작가가 하루 15킬로미터 정도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이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사진이 더 잘 나올지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한다.

사진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감도 나누고 이와 같은 전시회에 젊은 사진작가들도 많이 초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들을 보고 당장 유럽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고들 했다.

조성용 화백은 전시된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은 <이탈리아 처녀>라고 했는데 이에 취재 나간 본사 기자들도 공감했다.

조성용 화백은 전시된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은 <이탈리아 처녀>라고 했는데 이에 취재 나간 본사 기자들도 공감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세계 평화의 햇빛이 따뜻하게 해준다

김포평화민속예술단의 사할린 공연

지난 1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 후원으로 한국 전통민속공연이 개최되었다.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대표이사,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의 인사말씀과 환영사로 시작한 이날 공연은 한민족 전통예술의 세계로 이끌었다.

사할린 챔버오케스트라의 아티스트 게라시멘코 마리안나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추어 김성은 무용가의 <현을 타는 살풀이>가 관중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았다. 마음에 와닿은 멜로디, 우아한 동작, 삶과 죽음, 슬픔 등을 담은 살풀이다.

이날 김성은 무용가의 춘앵전도 멋있고 화려했다.

서도소리의 이수자 성정숙 명창은 수심가와 엮음 수심가를, 중요문화 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이자 윤소리 명창은 긴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을 들려주었고 선소리 전수자 차석환 명창은 고음으로 배뱅이굿과 덕

담경을 불러주었다.

노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는 선비 역할을 맡아 한량무를 선보였다.

진도설북놀이, 원앙금풍의 박희정 명인은 흥을 돋우는 설장구를 신나게 쳤다. 그의 손발 움직임이 남달랐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은 크지 않았지만 전통예술의 명인들의 단독공연으로 수준 높은 전통민속예술의 명품을 선사했다.

윤소리·차석환·성정숙의 민요(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와 공연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아리랑을 전체 합창으로 부르자 동포 어르신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김포에서 온 소리꾼, 승무와 함께 춤판을 벌였다.

이날 공연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강신구 김포문화재단 이사가 각 작품을 설명하고 러시아어 통역과 사회는 이옥분 씨가 맡았다.

김포문화재단이 준비한 일부 사진과 미술작품도 전시되었다.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대표이사는 이날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 주명수·조성용 사할린 동포 화백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김포평화민속예술단의

14일 네벨스크 중앙문화회관에서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고 김포를 소개하는 미술전시회도 성공적이었다고 전해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с греют лучи мир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Пхёнхва» г. Кимпхо

«Наверняка, всем кто давно посещает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слуху слово «Кимпхо». И сразу возникает в образ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обслужив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ерелеты со всех стран мира. Именно в этот аэропорт прибывали наши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гда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первыми переезжали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Кимпхо – это большой город,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провинции Генгидо,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столица Кореи город Сеул. Население Кимпхо составляет 220 418 чел, расстояние до Сеула 23 км, до Ансана 34 км.

Сахалин и Кимпхо связывает еще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г.Кимпхо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300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е нашли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марте 2019г. исполнится 10 лет, как сахалинцы обосновались в Кимпхо и Фонд планирует в эту честь порадовать бывших сахалинцев культур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сообщил 14 декабр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Кимпхо Чве Хе Ван на встрече с мэром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Шабельником

Алексеем Васильевичем. Кореян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ы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Невельска провел на Сахалине дружественный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двух городов Кимпхо и Невельска под рубрикой « One's PEACE Нас греют лучи мира» .

В рамках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фойе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им. Г.И. Невельского была размещена на плакатах презентация о городе Кимпхо и оформлена выставка живописи художников Кореи в различных жанрах и стилях, а такж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снимки, на которых фотохудожники запечатлели город Кимпхо.

В этот же день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и танц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Пхёнхва» г. Кимпхо (김포 평화 민속예술단) с участием Ансамбля скрипаче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г. Невельска. Перед началом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г. Кимпхо и 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бменялись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речам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бы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артисты, имеющие статус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разных жанрах искусств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к объекты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го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где официально каждому артисту присвое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номер.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а были исполнены старинны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Кореи, которые передавались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ровинции Пхённандо, Хванхедо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провинции Гёнги (исполнители Юн Со Ри , Сон Ден Сук, Ча Сок Хван), показаны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эпохи Чосон,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лись во времена празднеств во дворах королей, во время собраний чиновников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ов, а также во время пиршеств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игры на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сольдангу,квэнквари и др. (исполнители танцев Ким Сон Ын, Но Су Ын, Пак Хви Ден). Необычным был танцевальный номер «Струнный лейтмотив»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Ким Сон Ын), который отличался высо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ью, необычайной женственностью, нежностью, гибкостью. Особенностью этого танца еще было то, что данный танец сопровождался «живой» игрой на скрипке (исполнитель-артис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Герасименко Марьяна). Порадовал зрителей мужской танец «Халлянму», испол-

ненный танцором Но Су Ын, где сочетаются благородство конфуцианских учёных Соби и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как спокойствие, тяжесть и движение. Детишки ансамбля скрипаче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г. Невельс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нсамбля Виктории Юхмановой исполнили класс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как всегда, порадовали своих земляков мастерством исполнени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показали своё искусство жителям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о отраднo, что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ришло наш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Как раз бабушкам и дедушкам, наверное, это более знакомо и понятно, и видно было по их реакции, что им по душе такие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зр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оже дели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том, что на этом концерте познали и увидели что-то новое, во время просмотров представляли самобытность старинных эпох, о которых познавали в период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ли просмотров корей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Мы не могли не познать гостей Кореи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о Сахалина. Они побывали на пл. Ленина, Победы, Славы, краеведческ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х, кафедральном соборе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и, конечно, на Горе Грусти в г. Корсакове, где они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о тяжелом времен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оккупации японцами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с 1905-1945г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церт организован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орода Кимпх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и Ольга
Фото: Ли Е Сик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оплата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СП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mail: Ase65@bk.ru
https://vk.com/ase_sr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убботам: с 14:00 до 16:0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обязательна)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З»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вотсап: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Полиция Кореи арестовала дилеров, ввозивших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из РФ

Пол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арестовала целую дилерскую сеть, которая занималась ввозом в страну нелегаль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Среди арестованных есть и россиянин, который за плату ввез в Корею 60 граждан РФ.

Преступную схему, связанную с ввозом в Южную Корею нелегалов, выявил Отдел внешних операций Службы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морской пол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итоге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18 дилеров, которые были участниками схемы. Среди задержанных - 58-летний кореец, который создал фирму для ввоза нелегалов, и 48-летний россиянин. По поводу корейца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 период с марта 2016 г. по октябрь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он организовал приезд в Южную Корею около 260 иностранцев. Зарубежные граждане приезжали под видом туристов, после чего их устраивали на работу - в основном на строи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За свои услуги он брал с них часть зарплаты, сумев заработа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7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 8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полиции заявили, что россиянин помогал корейцу искать тех граждан РФ, кто хочет выехать на нелегальные заработки в Корею. Для этого в соцсетях широко размещалась реклам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За два года брокер смог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иезд на нелегальные заработки около 60 россиян. Все они были устроены на работу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ых домов в городе Хвасо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В компании-застройщике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они понимали, что нанимают нелегалов, но объяснили свое поведение сильной нехваткой рабочих рук, а также нежеланием корейцев трудиться на стройках. Россияне за день работы получали 100 тысяч вон, из которых около десяти процентов уходило на оплату услуг брокеров.

Отмети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полиция уже ранее отмечала рост притока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з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было обещано,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некоторые брокеры-посредники начинают действов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открыто, предлагая помощь в пересечении границы и дальнейше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Для женщин предлагалась работа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обещая при этом 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суммы заработков, которые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оверка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завершилась

17 декабря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верка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которая началась 30 но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из 28 экспертов принимавшая участие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инспекции линии вдоль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вернулась на родину. Эксперты Юга и Севера оценили состояние линии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00 км вдоль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города Вонсана до станции Туманган на границе с Россией. Накануне Юг и Север завершили оценку состояния участк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400 км от Кэсона до Синьчжу на границе с Китае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теперь стороны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подготовке к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работ по соединению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Юга и Севера, а также их модерниз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которая, как планируется, состоится 26 декабр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Пханмун.

ООН призыв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претить расовую дискриминацию

Комитет ООН по ликвидации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запрещающее все формы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пятницу комитет опубликовал отчет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обсуждений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 документе отмечается отсутствие в РК правовых норм, запрещающих расовую дискриминацию, высказываются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ложением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приема беженцев.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в 2012 году комитет рекомендовал Сеулу разработа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запрете всех форм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но никаких действий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и ситуация не улучшилась. Комитет выразил озабоченность ростом числа расистских высказыван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беженцев из Йемена, призв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ледить за ситуацией и наказывать виновных в разжиган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розни. В документе также содержится призыв улучшить полож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и детей от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В РК создаётся «ум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к 2022 году создать 30 тыс. «умных» заводов и 10 «ум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зо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13 декабря на отчетном заседании по стратегии «умног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ектор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вяти ведомств, в том числе министерства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й план позволит на 30%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промышленных авар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а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о 100 тыс.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читают, что данн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66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овысить продажи на 17 млрд долларов.

Мэрия Сеула предоставит более 2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людям старше 50 лет

Мэрия Сеула намерена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ь 2.155 рабочих мест людям в возрасте 50-70 лет. Данный пла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17 декабря. Речь идёт о проекте «Желаемая работа 50+»,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5 года.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еульча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со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сширяя опыт. В первый год в шести программах проек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42 человека.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рограмм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до 31.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ный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соедин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 различ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ышедшими на пенсию.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Сеула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повышение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в такс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Сеула утвердило в пятницу решение городской мэрии о повышении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в такси с первого январ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Базовый тариф,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3.000 вон (2,65 доллара), будет повышен на 27% и составит 3.800 вон (3,40 доллара). Ночной тариф, который действует с полуночи до 4 часов утра и составляет 3.600 вон (3,15 доллара), повысится на 28% до 4.600 вон (4,10 доллара). Решение столичных депутатов вступит в силу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комитетом п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 ценам мэрии Сеула, заседание которого состоится 26 декабря.

(RKI)

Эксперт: "Главная роль России в Корее — поддержка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48)
"РГ": А возможно ли новое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Какие-то резкие шаги? Или наоборот, какие-то прорывы в хорошую сторону?

Толорая: Не могу исключи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решит сыграть ва-банк. Судя по всему, он рискованный человек, вполне может найти повод типа учений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Тем более,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спехи,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есть чт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есть над чем работать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ракетно-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роме того, на Кима давит и своя военная верхушка, которая осталась не у дел из-за всего этого примирения.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прорывах в сторону мира, то КНДР может в итоге пойти на разрушение главного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Ёнбёне, могут снова пустить ту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спекторов, как пустили когда-то ранее, но вряд ли это будет расцене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ой как достаточный "прорыв" и качественный сдвиг.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США, то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 общем приближении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уже началась очередн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а потому Трамп будет делать все то, что может ему помочь вновь победить на выборах. Если сочтет, что что-то ему поможет выиграть выборы, какой-то шаг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 пойдет на него.

"РГ": Можно ли ожидать, что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лане США и КНДР в итоге найдут общий язык? Станут в каком-то плане партнерами?

Толорая: В этом план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ьетнама, который ранее был главным переговорщиком с США при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В целом,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ьетнамский опыт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быть весьма полезен и интересен. Я говорю не об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ах, а о политик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одходе.

Вьетнам в свое время воевал с США, победил американцев, но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им в итоге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подружиться ради общей цели в виде сдерживания Китая. А потом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вполне может рассмотреть эту модель поведения, став своего рода сдерживающим Китай фактором. Может и не таким активным, как Вьетнам, но общий

подход, я думаю, понятен.

Если на этой почве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с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я уверен, что США сразу же забудут про проблему прав человека, перестанут говорить о "диктатур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начнут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включая экономику, политику и все остальное. То есть, КНДР вполне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ьетнамскую схему" и для себя при переговорах с США, показав, что Север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ен для глобальных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регионе.

"РГ": Южная Корея вообще и ее президент в частности очень активны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и нормализации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ак будет себя вести Сеул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олорая: Если вдруг КНДР пойдет на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то Сеул окажется в очень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будучи зажатым между двух огней -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Даже не знаю, что тогда решит дел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Для них это очень нежелательный сценарий, и они явно не хотят его допустить, потому и пытаются убедить США и КНДР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а не конфликтовать.

А пока, я думаю, Сеул будет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оказывать ему помощь во всем.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продолжают делать то, что не раздражает США. Вот Сеул добился же, чтобы США отменили санкции и пуст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езд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ля обследова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Наверное,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шаг за шагом пытаться открыть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инципе, это и для России хорошо. Глядишь, может, поможет и нам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Хасан-Раджин", соединить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Юга, Севера Кореи и России. Эт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весьма дале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РГ": Еще один постоянно задаваемый вопрос: как вы думаете, возможен ли полный отка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олорая: Нет конечно. Я же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пока нет вообще понимания, что именн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понятие "полный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стат,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итай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ыдвинул интересную новую идею по части формулы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КНДР. Не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то есть "полное, проверяемое, необратимое разоружение", как было когда-то, и не выдвинутая при Трампе формула FFID -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то есть "окончательная, полностью проверяем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а китаец предложил новое. Это CRID - "conditional, reciprocal, incremental denuclearization", то есть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постепенное, на условиях взаимности и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й". Вот эта формула мне нравится, может, нам и стоило бы внести ее в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То есть, постепенный отказ и плавное приближение к недостижимой точке, максимальное с ней сближение.

Вполне можно будет говорить о некоей приемлемой схеме как для США, так и для КНДР. Ведь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интересах США, то их интересует куда больше именн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ая угроза для себ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сле России и Китая стала третье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может достать Америку ядерной ракетой. А потому, есл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гласится уничтожить как класс сво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БР), что лишит ее ре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и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США, то это может устроить Америку.

Сама же КНДР не собирается воевать с США, ядерное оружие - это оружие самообороны. А потому возможен некий компромисс, когда КНДР останется с минимумом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но без возможности их доставки до США, что может устроить Трампа. А после этого можно очень долго идти к постепенному сворачиванию яд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быть, США согласятся выкупать низкообогащенный уран у КНДР и так далее. Но было бы наивно думат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гласится вообще остаться без какого-либо минимального ядерного щи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 ей для самообороны.

Повторюсь: наверное, можно будет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 США лишат КНДР возможности наносить удар по территории Америки, 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хранит при этом минимум ядерных зарядов. Это, наверное, может стать компромиссом, который устроит обе стороны. Но абсолютно полно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когда КНДР откажется "вообще от всего" - это наив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это вряд ли возможно.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6)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видео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12 декабр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ак Кён Со в ходе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е сделал заявление о возможном проведении предстоящей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ведётся а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Севером. В связи с этим у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увиде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объясняется несколькими причинами.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 люди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этому длительная поездка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для них слишком утомительной. Другая причина кроется в ограниченном количеств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проведени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и передача видеописем могут стать приемлемым вариантом для всех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идео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оводились семь раз в период с 2005 по 2007 годы. За это время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557 семей или 3.700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в связи с обостре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з-за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 по видеосвязи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кая встреч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необходимо проложить кабель и установить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действуют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нкции, его передач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ложной задачей. 20 декабря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тивен Бигэн будет в Сеул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и с ним может быть решён вопрос о поставках оборудования.

(KBS WORLD)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88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гранты за достижение высоких темпов рос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территорий получат всего пя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Амурская, Магаданская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и, Камчатский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споряжение подпис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Согласно оценке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е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достигну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Камчатским краем.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одна из самых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россий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уже показ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но при этом есть резерв для роста. Поощрение пя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убъектов за достижение высоких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показатель того, что работа идет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сред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гранта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на основе предложений, поступивших от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Их сбор уже начал.

- От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региона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то, какой буд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гранты в размере 19,9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распределены между субъектами РФ, занявшими с 1 по 40 места по итогам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о достижению высоких темпов наращи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территорий за 2017 год. Средства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Жителям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необходимо больше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и участники делега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фестиваля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аппаратом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олицы, проходило в Экспоцентре с 13 по 15 декабря.

Цель проекта - рассказать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об уникальной и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ющейся территории на востоке страны.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в основном ученикам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выпускникам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том, ка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спективную работу, где отдохнуть.

Фестиваль пользовался огромным успехом. За три дня сте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и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пектр вопросов - от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лучить

рыбачью профессию на Сахалине до особенностей управления собачьей упряжкой.

- К нам обратились сотни студентов раз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от полиграфии до финансового дела, - сообщил Александр Морогов,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обеспечения персоналом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 Безусловно, 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будущих нефтяниках и газовиках, например, студентах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Губкина. Они обычно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ы, знают специфику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и вопросы у них достаточно предметные. Возможно, кто-то из них вскоре пройде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практику в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а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полнит ряды персонала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 вопросам поиска работы с помощью портала «Работа в Росси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том, как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емлю на острова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как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фермеров.

- Наш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ссказывали гостям о важном событ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феврале будущего года -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уризм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мволы мероприятия - Олененок Юна, Лиса Лыжуля и Сивуч Ныш активно приглашали болельщико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акже у нас на стенде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ился розыгрыш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утевки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д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В программе - трекинг в горах, катание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или сноуборде на склонах лучше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ездки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 Несмотря на успешное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мы поняли, что работу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региона необходимо усилить, - сделал вывод глава островной делегации,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 Например,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лучить памятный сувенир с символико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Для этого надо было ответить на несложные вопросы об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кажем, назвать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К сожалению, оказалось, что мало кто из молодых москвичей способен ответить даже на этот вопрос. Поэтому надо больше рассказывать жителям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о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Это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островов, привлечь студентов в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новые кадры в экономику и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региона.

В решении этой задачи, считают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должны помочь и нетривиальные ходы. Например,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из группы «Dream Vox» по пути в Москву в самолете сочинили песню,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неофициальным гимном фестиваля, но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олее 360 факелоносцев пронесут огонь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о городам и сел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и станут выдающиеся спортсмены, полити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масштабных состязаний, почетные гости. Факелоносцам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4 тысячи 112 километров. Свидетелем этого яркого события сможет стать кажд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Старт эстафете будет дан за 50 дней до начала масштаб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Зажжение огня произойдет в Якутии - на родине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Обряд с соблюдением древних обычаев проведут 22 дека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риродном парке «Ленские столбы».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огонь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ронесут по Якутску, а затем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хранителей отправ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ламя состязаний прибывает 31 января в 24.00.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его передадут на временное хранение руководству реги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 эстафете огня будет дан 7 января. В этот день символ игр отправится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а 18 января он начнет свое шествие по острову Сахалин, с самого северного города - Охи.

- Факелы для огня выпущены специально к играм «Дети Азии». Своей формой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сего изготовлено 32 факела, и часть из них останутся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где пройдет эстафета,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Егор Умнов.

Начиная с момента зажжения пламени,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эстафеты его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хранители. Ими стали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а, которые имеют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и пропагандирую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ь лет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2004 года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В числе хранителей огня также мастер спорта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член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финалистка лет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2008 года Карина Глебова и кандидат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победитель и финалис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лья Нургалеев.

Завершится эстафета 9 февраля. В этот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ся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как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этап к Зимним юношеской Олимпиаде 2020 года,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Лозанне.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остязаниях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о около 1000 волонтеров. В течение года добровольц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ыездных стажировках - например, в Академии волонтеров FISU в Казани,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Джакарте, юношеск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Буэнос-Айрес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5)

"РГ": В чем роль России во всей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олорая: Главная роль России во всем этом - удерживать драчунов, то есть США и КНДР, от того, чтобы они не «подрались». Откровенно говоря,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серьезных рычагов -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иных - влияния на ту же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хотят от нас решения каких-то конкретных вопросов, той же отмены санкций. Им, конечно, приятно, что мы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поддерживаем их политику развития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что выступаем за отмену санкций,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Пхеньян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т, что решающей роли мы здесь тоже не играем. Мы можем работать с южанами, китайцами, США и другими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атмосферы для диалога, поощрения компромиссов.

Если кому-то в РФ от этого обидно, то я не разделяю этот подход. России абсолютно не нужен еще один конфликт рядом с ее границами, вторая Сирия какая-то... Идет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идут консультации, мы все это поддерживаем, какую-то поддержку даем, какие-то развязки предлагаем, даж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чтобы их нашими признавали... Раз идет все в сторону мирного диалога, ну и слава Богу,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ют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

"РГ": Вернемся к Южной Корее в привязке к России. Доводилось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часто слышать, что в отношениях Вашингтон-Сеул наметилось охлаждение, что Сеул ведет себя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жно ли надеяться,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ойдет хотя бы на

отмену собственных,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не спросив об этом одобр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ША? А ведь отмена этих санкций нам и нужна для развития некоторых своих проектов с КНДР...

Толора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сейчас ведет себя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Это не какая-то бравада, 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ый для них аспект, вопрос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иоритета, выживания и будущего страны, потому и действуют так. Очевидно, что американцы сейчас не могут добиться от Сеула всего, чего они хотят. По-моему, американцы это с сожалением понимают и пытаются сделать какие-то уступки, как, например, произошло с отменой санкций для прох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езда в КНДР.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мне это все так видитс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ивно полагать, что альянс с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торгнет или как-то сильно изменит, он останется основой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Юга. Но, я надеюсь, Сеул станет все менее подчиненным всем капризам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не будет исполнять с готовностью все указания США,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интересам Сеула. Что касается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Юга,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нам... Южане говорят нам, что мы-то, мол, рады, не против этого, но есть вопросы с конкретными нашими компаниями, где в правлении сидят либо "иностранцы граждане", либо продукция компаний идет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на американский рынок. А потому они боятся, что, отменив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и

разрешив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аших проект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Севером, их компании попадут под санкции США, боятся пока. Но все же не исключаю, что настанет момент, когда мы сможем этого добиться.

Впрочем, тут нам надо неуклонно,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долбить в одну и ту же точку, убеждать южан, доводить до них, что это вопрос для Росси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Возможно, что так мы сможем развернуть ситуацию в более благополучном для себя направлении и добиться прогресса.

"РГ": Про э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ного говорят, но мало кто знает точно, потому спросим и у вас. Что известно по поводу визит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Когда э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и какие вопросы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лидеры РФ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гда встретятся?

Толорая: Тут я вряд ли смогу вам что-то прояснить. Но в целом, как мне видится, это не так уж и важн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ъективно, то уж очень остр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визите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нет. Это справедливо и для нас, и для них. Конечно, хорошо будет встретиться, хлопнуть друг друга по спине, сказать, что мы за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это и так известно.

С мо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выглядело бы, если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ехал бы в Пхеньян, даже на полдня, по пути, скаже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Вот это да, подняло бы акции России в общих раскладах. Впрочем, это тоже была бы, скорее, лишь эффектная акция,

не более того.

А так, острых, неотложных тем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вроде бы и нет. Мы понимаем и разделяем подход по част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хорошо знают нашу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все по ней и так движется. Если и возникают мелкие нюансы, то их решение не требует личного участия первых лиц. По чисто двусторонним аспектам - рабочая сила, какие-то проекты - все это завязано на ООН, и только мы не можем решить. В Пхеньяне это понимают.

То есть, скажу опять, такой уж остр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то в визите и нет. Визит, когда он состоится, будет носить ритуально-форм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Просто получается немного неудобно: Ким Чен Ын уже встречался несколько раз с лидерами Китая,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ел саммит в Трампом,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мы да Япония. Вот для японцев - да, визит Ким Чен Ына носил бы очень важный характер, а для нас - скорее, формальность. Наши позиции согласованы, известны, потому, возможно, все и решается без спешки.

Совсем другая ситуация была в 2000 году, когд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ехал в Пхеньян. Тогда да, визит носил эпохальный, прорывной характер. Северокорейцы тогда сами говорили: "Двери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были заперты, но ключ, чтобы их открыть, был у вас - это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от вы взяли ключ и открыли двери, потому и отношения наладились". Сейчас же несколько иная ситуация, причин для спешки н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Эксперт: "Главная роль России в Корее — поддержка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제11회 문경새재아리랑제' 성황리에 마쳐 문경새재아리랑,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으로

2018 문경새재아리랑제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경시가 주최하고 문경문화원/(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문경새재 2관문에 위치한 문경새재아리랑비에서 고유제를 열고 시작을 알렸다.

제1회 문경새재아리랑제가 개최된 지난 2008년 이후 고유제는 처음으로 문경새재아리랑을 불렀던 모든 혼(魂), 천지신명,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혼들께 문경새재아리랑제 무사기원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극복을 고유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문경문화원 다목적실에서 문경새재아리랑 경창대회가 열렸으며 총 10개 읍면동이 참가해 접촌 2동이 1위를 차지했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문경새재아리랑 가사짓기 대회가 문경문화원에서 개최됐으며 50여 명이 참가해 접촌고등학교 남유정 학생이 장원,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20명을 시상해 오늘날의 문경새재아리랑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본행사에선 '디아스포라 아리랑, 제11회 문경새재아리랑제'란 주제로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온 동포들의 아리랑이 함께 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 4세 신아리나(5세)의 '사할린 아리랑'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솔무용단의 러시아 민속무용, 안드레이의 아코디언 연주로 이어졌다.

여기에 공연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소프라노 전월선(일본 동포)의 가곡으로 재해석된 '문경새재아리랑', 고려인 2세 게나 김의 '카레이스키 아리랑', 본다렌코 빅토르의 러시아 민속악기로 연주하는 '문경새재아리랑', 공주아리랑보존회 남은혜 명창의 '북간도 아리랑',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의 '영천아리랑' 순으로 이어갔다.

이어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고대 연구교수와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통일양상블'이 협연한 '아리랑 소나타', 중국동포 3세이면서 연변가무단 수석 단원인 최려령·강화 부부의 '기쁨의 아리랑', 아리랑무용단장 김채원과 예당무용단 대표 이세범, 고려인 3세에



▲ 지난 11일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디아스포라 아리랑, 제11회 문경새재아리랑제' 행사를 마친 후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행사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경시청)

스텝핀 브라디미르가 함께 한 '아 디아스포라' 몸짓, 태백아라레이보존회의 '광부아리랑', 경남 밀양의 중학생들로 구성된 아리랑 친구들의 '밀양아리랑'의 순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로 사할린 동포 2세 작곡가 김 세르게이가 작곡한 '아리랑 나라'를 출연자 모두가 함께 합창하며 문경새재아리랑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공연은 장중하면서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무대로 꾸며져 마치 관객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듯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 가슴을 뭉클함을 남겼다.

문경시는 2015년 12월 서울 하늘에서 우리 문경을 아리랑도시로 선포하고 아리랑 관련 사업을 숨 가쁘게 진행시켜 왔으며 특히 아리랑 대장경이라 불리는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를 완성한 바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젠 문경새재아리랑이 문경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번 문경새재아리랑제를 통해 문경새재아리랑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극복'이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내외뉴스통신)

[우리말로 깨닫다]

긍정의 언어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새벽에 일찍 깨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머릿속을 파고드는 생각은 온통 잡념(雜念)입니다. 잡념과 씨름하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저는 잡념이 가득할 때면 주로 복식호흡을 합니다. 예전에 배운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해

보는 건데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의 호흡과 반대로 하는 것이어서 약간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반대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습관을 거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복식호흡에는 잡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스프르 잠이 다시 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근이 생기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잡념이 사라지지 않으면 꽤 오랜 시간을 복식호흡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뜻밖에 배의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뱃살도 좀 빠졌고요. 잡념도 때론 긍정적입니다. 몸 깊은 곳에 에너지가 모이는 뜨거움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또 새벽에 깨어 괴로운 생각 속에 떠돌다가 문득 긍정적인 어휘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긍정적 어휘가 우리 몸에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죠.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책에서 감사한 일을 일기처럼 적는 일만으로도 심리의 회복탄력성이 생긴다는 연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어휘를 떠올리는 건 나의 상태를 가볍고 밝고 맑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휘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저에게는 '행복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깐 미소가 입가에 생겼다가 씩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행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잠깐의 행복과 긴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뒤로 '기쁘다, 고맙다, 반갑다, 좋다' 등의 단어가 줄을 잇네요. 얼굴에 미소가 커집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참 많네요. 기쁜 일이 많다면 행복하겠죠. 고마운 일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죠. 반가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예쁘다, 사랑하다에서 단어를 잊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다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왜 사랑을 떠올리면 아프기도 할까요? 사랑하는 일은 기쁘면서도 아픈 일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기도 합니다. 곧이어 '보고 싶다', '그립다'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점점 더 아파웁니다. 긍정이 늘 기쁜 건 아닙니다.

그립다는 말에서 '슬프다'로 넘어갑니다. '아프다'로 넘어갑니다. 이제 '서럽다'도 따라옵니다. 힘들다는 말도 어렵다는 말도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고맙다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다시 행복하다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우리의 긍정에는 아픔과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긍정의 언어에 담긴 슬픔을 만나고 나서 긍정이 더 커졌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지역 첫 '한국어 올림피아드'

카잔연방대에서 10년간 한국어 대회 주관, 올해 러시아연방 올림피아드로 격상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러시아연방 카잔의 카잔연방대학교 알렉산드르 1세 기념홀에서 지난 12월 8일 개최됐다.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교수)와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한국어 올림피아드' 대회는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1만여 명의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한국어 능력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10회째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 대회가 러시아연방 인정 올림피아드로 격상돼 최초 '러시아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지역에서 30개 대학교, 20여 개 고등학교, 9개 세종학당, 99개소 한글학교에서 1만여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대회에는 러시아 전지역(브라췌야 공화국,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첼랴빈스크,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보로네즈, 로스토브나도누, 니즈니갑스크, 나베르니첼니, 카잔,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즈공화국 각 지역에서 총 6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신한대학교 측에서는 서갑원 총장을 비롯해 최창영 국제어학센터장과 한상욱 교수가 참석했다.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올림피아드에서의 경험을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한국어 공부

에 매진한 후 원하는 한국 유학의 꿈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어 올림피아드는 쓰기와 말하기 두 부문으로 진행됐다. 쓰기 부문에는 겨레일보 박종권 사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 최창영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장, 서지연 보로네즈 한글학교 교장, 카잔연방대 안다리아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말하기 부문에는 최창영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 박종권 겨레일보 사장, 신한대학교 한상욱 교수, 전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노예영, 카잔연방대 후지나 알리나 교수, 카잔연방대 교수 겸 따따르한글학교 김영숙 교장이 심사를 맡았다.

말하기 부문 참가자들은 한국관광과 명소,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복, 한국 문학, 영화, 음악, 음식, 미술, 사이버스포츠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문제, 역사 등 사회적인 이슈까지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7분간 발표를 했다. 쓰기 부문의 경우, 고등부는 '한국 케이팝', 대학부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주제로 제시해 40분간 작문하도록 됐다.

심사 결과, 말하기 부문의 고등부 우승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에서의 본인의 인생에 대해 들려준 레비나 빅토리아(러시아 이제브스크



No.52학교 11학년) 학생이 선정됐으며, 대학부 우승자는 '한반도의 통일, 대비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한 알렉산드르(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동양학 3학년)가 선정됐다.

쓰기 부문에서는 느구엔 리엔 탕(우과고등학교 졸업) 학생이 고등부 우승자로 선정됐으며, 부토리나 크 세니아(카잔연방대학교 한국경제 4학년) 학생이 대학부 우승자로 선정됐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신한대학교 한국어연수 장학증서가 수여됐으며, 신한대학교, KF, KDNVIEN, KEB하나은행,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휴대폰 등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국어올림피아드를 주관한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는 "그동안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의욕 증진과 한국유학의 통로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러시아연방에서 공식 인정을 받아 큰 의미가 있고, 추후 성숙한 단계로 이행돼야 하기에 책임감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реть сахали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щут сотрудников через службу занятости

В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опроса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 качестве и доступност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 опросе, проведенном в конце 2018 год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18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вязи.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31% респондентов основным способом поиска новых работников выбирают обращ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занятости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18% предпочитают искать работников посредством объявлений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16% осуществляют поиск необходимых работников через коллег и знакомых, 15% —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х.

При поиске нов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ибольшие слож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и испытывают в подборе рабочих высок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5-6 разряды) — 27% респондентов,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мастеров участков, технологов, бригадиров и пр.) — по 21%, а такж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2-4 разряды) — 20%. Наименьшие труд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и испытывают с поиск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5%).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55%)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сложности поис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читают не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обходим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18%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сложность в поиске необходим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ключается в низк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условий труда, 14% отмечают низкое качество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у 6%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возникает сложностей при поис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обходим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В целом,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качестве найденных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41%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ообщают о частичной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работниками, отмеч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езначительного доучивания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и, 31% удовлетворены полностью, поясняя, что найденные кадры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бованиям предприятия.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найденными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дана 3% респондентов в связи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ереобучения вновь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사할린 학생들이 66 마리의 귀신고래에게 이름 지어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2호 초등학교 학생들은 <고래의 이름>콩쿠르에서 우승한 작품들이 실린 작문 선집의 첫 독자가 되었다. <엑손 석유가스 유한회사>의 후원으로 2017년 동안 <부메랑> 클럽이 진행했던 콩쿠르의 목표는 귀신고래들의 이름을 창안해 내는 데에 있었다. 콩쿠르에는 사할린 각 구역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오호츠크 · 한국 개체군의 귀신고래 66마리는 콩쿠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을 단번에 얻어 학생들 덕에 귀신고래들한테 새 이름이 생겼다. 학생들은 모든 고래들이 가장 착하고, 신비스럽고, 친화적이며, 온건한 동물이자 든든한 부모라고 얘기한다. 학자들은 각 고래들을 알고, 이들의 운명을 추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름 덕분에 그 일이 더욱 쉬워졌다.

출간된 <고래 이름의 탄생>작문 선집은 이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선집에는 학생들이 고래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학생들의 작문과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문 선집을 통해 고래들의 모든 새로운 이름들과 이름을 지어준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은 귀신고래에 대한 4개의 주제별 구간을 통과했다. 4개의 구간들은 '과거 고래의 모양들을 들여다 보았다.', '플라스틱으로 덮

인'바다에서 고래 먹이의 결과물을 연구했다.', '귀신고래의 주된 먹이를 밝혀냈다.', '다섯 고래들의 이름의 역사를 알아냈다.'이다.

<고래 이름의 탄생>작문 선집을 얻으려면 <부메랑 클럽>을 찾아가 받을 수 있고 작문 선집은 1000부를 출간해 사할린주 도서관들과 교육기관들에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부메랑> 클럽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дети дали имена 66 серым китам

Ребята 32-й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и первыми читателями сборника сочинений с лучшими работами конкурса "Имя кит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в течение 2017 года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и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придумывание имён серым китам.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т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а.

Имена, придуманные детьми в ходе конкурса, получили сразу 66 серых китов охотско-корейской популяции. Благодаря детям у серых китов появились имена. Все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что киты — самые добрые, загадочные, дружелюбные, спокойные животные и надёжные родители. Учёные стараются знать каждого кита и отслеживать его судьбу, а благодаря имени это легче делать.

Об этой истории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изданный сборник "Как рождалось имя кита". В него включены детские сочинения и рисунки, объясняющие детский выбор имён для китов.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из сборника можно узнать все новые имена китов и их авторов.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и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четыре тематические станции о серых китах: заглянули в прошлое китообразных, изучили последствия питания китов в "пластиковом" океане, выяснили обычный рацион серых китов и узнали историю пяти китовых имён.

Для получения сборника сочинений "Как рождалось имя кита"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в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борник издали тиражом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и уже нач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в библиотека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луба "Бумеранг".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